"서울이 무섭다니까 남태령부터 긴다"

뜻: 무서운 소문만 듣고 지레 겁을 먹어서, 쓸데없이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지레짐작 · 비굴 · 공포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서 울 이 ∨ 무 섭 다 니 까

남 태 령 부 터 ∨ 긴 다

2단계 따라 쓰기 옅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서 울 이 ∨ 무 섭 다 니 까

남 태 령 부 터 ∨ 긴 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ㅅㅇㅇ] [ㅁㅅㄷㄴㄲ] [ㄴㅌㄹㅂㅌ] [ㄱㄷ]

웹에서 보기